



‘섬 지역민 숙원’ 전남 지방도 4개 해상교량 본격화

진도 접도대교 공사 추진·신안 장산-자라 연도교 신규발주
완도 소안도-구도·여수 월호도-금오도 구간 실시설계 진행
전남도, 올해 1천582억 투입 지방도 48개 지구 171km 정비

전남도가 올해 섬 지역민 숙원인 도내 지방도 4개 해상교량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특히 4개 해상교량의 경우 100%가 도비가 투입돼야 할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협의를 거쳐 소요 사업비의 50%씩을 부담하기로 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올해 1천582억원을 포함, 2019년 이후에만 총 9천112억원의 도비를 지방도 정비에 투입하는 등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민 편의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 의신면 접도대교와 신안 장산도-자라도 연도교, 완도 소안도-구도 연도교, 여수 월호도-금오도 연도교 등 지방도 4개 해상교량(총사업비 6천31억원 규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진도 의신면 접도대교는 접도 진입의 유일한 통로인 기존 접도대교가 협소하고 노후화(0.52km(해상교량 0.35km, 접속도로 0.17km) 연장의 연도교(총사업

●전남 지방도 정비 현황

연도	지구	예산액
2019년	28	1천194억원
2020년	31	1천509억원
2021년	34	1천231억원
2022년	36	2천709억원
2023년	35	1천985억원
2024년	48	1천582억원
계	212	9천112억원

비 281억원)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격 공사가 진행된다. 2026년 준공되면 수품항 물동량 해소와 교량 통행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총 2천122억원이 투입될 신안 장산도-자라도 연도교는 30.4km(해상교량 16.6km) 구간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사 발주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027년부터 조달청 탄키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7차례 유찰 끝에 2021년 12월 기타공사로 전환됐다.

완도 소안도-구도 연도교와 여수 월호도-금오도 연도교는 내년 상반기 공사 발



‘사랑의 온도탑’ 조금만 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광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모금 종료(31일) 사흘 전인 28일 100도에 미치지 못한 97.6도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김예리 기자

주를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총연장 207km(교량 135km, 접속도로 0.75km)의 소안도-구도 연도교는 1천272억원 규모로 2017년 개통한 노화도-구도 구

간에 이어, 소안도까지 연결되면 1만여명이 거주하는 완도 노화·소안·보길 지역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수 지역민 숙원 중 하나인 금오도

연결 해상교량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국도 77호선 화태-백야 간 연도교와 연결되면 금오도가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여수 대표 섬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월호도-대두라도-금오도 구간 3.46km(해상교량 2개소 1.53km, 접속도로 1.93km) 구간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2천366억원 규모다.

4개 해상교량 공사를 통해 천혜의 자연 환경과 섬 등 비교우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에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남의 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올해 지방도 정비 사업에 총 1천582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올해 지방도 정비사업 대상은 48개 지구 171km 구간이다. 이 중 장흥 유차-화순 이양 등 8개 지구는 올해 안에 준공된다.

또한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교통 수요를 대비해 전남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11개 지구 공사를 신규 발주하고 미착공 지구 선 보상비 및 설계비 등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방도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거 매년 1천억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방도에 투입해온 전남도는 최근 사업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방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도로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임록 지사가 22개 시·군에서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 건의가 나온 분야 역시 지방도 관련 민원이었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이낙연-비명계 ‘개혁미래당’ 공동창당 선언

●제22대 총선 D-72

제3지대 ‘빅텐트’ 현실화...이준석·양향자 이미 합당
내달 4일 중앙당 창당...민주당 지지율에 영향 주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조원진·이원욱·김종민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개혁미래당’을 공동 창당하기로 해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가 먼저 합당을 선언한

바 있어 급대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의 합당도 시간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추진 세력인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28일 “공동창당”에 합의하고 2월4일 ‘개혁미래당’(가칭)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

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해체와 정치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는 국민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창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민주당이 뿌리라는 점에서 이들의 공동 창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동안 통합 논의가 이어오던 두 세력은 이 전 대표의 광주·전남 지역 출마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깊었지만 통합이 더 늦어지면 총선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

다고 보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협의나 합의는 다 이뤄고 큰 고비는 넘었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도부는 민주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5인 지도부를 둔다”며 “구체적 인선은 창당일까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도 제3지대 ‘빅텐트’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가급적 각당이 공천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가치 비전을 어

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그 위에서 통합이 가능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넣어 당명을 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신 위원은 “그렇게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시대정신인 미래, 개혁, 통합 등에서 찾아보 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가칭 ‘개혁미래당’을 공동 창당하기로 한 데 대해 다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것은 언제나 축하한다”면서도 “중국집에 전화기가 두 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절망하지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세력을 함께 만들겠다”며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지만,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oday

- 공원 앞장기주차차량 ‘골머리’ 6면
- 중소기업 4곳중 1곳 ‘설 자름’ 12면
- KIA, 김중국 감독 ‘직무 정지’ 16면

2024 광주매일신문 연중 공익 캠페인

봉사·나눔·배려로 만드는 지역공동체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광주·전남은 예부터 정(情)이 넘치는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낙후된 경제 여건과 인구절벽 문제가 지역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정신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흩어졌던 이웃 간의 정을 다시 나눠 국난을 극복할 때입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2024년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하고 소개해 온정이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행 기관·기업·단체 :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은행 · SHINSEGAE · 사랑의열매 · 광주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 (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 자평(子平) · (사) 광주광역시공무노동조합 · 한수원시니어직능클럽 ·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 건축자재 특화의 거리상인회 · 한국산업협동연구원
- (사)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 광주문화산업 · 손자녀돌봄사업 · 임원아동돌봄서비스 · 상무초방 · 보해양조 · 유탑건설 · COCONUT · 남부대학교 · 광주광역시북구 · 송원대학교 · 동신대학교
- 조신대학교 · 광주광역시 서구 · 전남대학교 · 광주광역시 남구 · 롯데백화점 · NH · 전남농민 · 남양건설 · 남양문화재단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 한국산업협동연구원
- 송원대학교
- 동신대학교